

보도설명자료

(’12. 9. 12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서울 알뜰주유소 1호점 6개월만에 문닫았다”
(’12.9.12, 머니투데이 4면)

1. 기사 요지

- ☐ 서울 알뜰주유소 1호점인 형제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
- ☐ 이는 석유공사의 비싼 공급가격에 원인이 있으며, 앞으로도 문을 닫는 알뜰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☐ 형제주유소 휴업은 알뜰주유소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, 개별 주유소의 자금 사정에 기인

* 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유소 매각을 협의 중인 상황

- ☐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공급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,

- 서울지역의 다른 알뜰주유소는 주변 주유소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중

* 서울 알뜰-일반 주유소 가격 차이(9.12일): 휘발유 101원, 경유 126원
(전국 평균 차이 휘발유 36원, 경유 42원)

- ☐ 앞으로 지경부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점검 및 평가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, 공급선 다변화등 공급가 인하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

* 알뜰주유소 풀을 내릴 경우 시설개선 지원금 회수도 추진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문신학 과장 (02-2110-4890)

전동욱 사무관 (02-2110-5458)